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추석 연휴 전주종합경기장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 전주시보건소, 14일부터 우선접종대상자·고위험군 대상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독감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우선접종대상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이다.

예방접종은 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사이 유아와 어린이, 임신부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단,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는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8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2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kdca.go.kr) 또는 콜센터(중앙 1339 및 지자체)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접종 시작 일주일 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접종 예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9월 말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만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의 경우 오는 11월 22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전주시보건소에 접종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접종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유공자는 증명서 등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상담은 전주시보건소 또는 천년전주콜센터(063-222-1000)를 이용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내 유행시기가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이고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이 평균 6개월인 점을 고려해 10월부터 12월 사이를 권장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건강한 겨울나기의 첫걸음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의 안전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주시보건소, 30일까지 평일·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운 전주종합경기장에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 추석 연휴기간 타 지역을 오가는 국민들의 코로나19 검사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30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내에서 공휴

일에도 이용 가능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경기장 임시 선별진료소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50+ 인생학교' 7기 입학생 30명 모집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인생 재설계를 돕는 학교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인생 전환기의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64세 시민을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50+ 인생학교' 7기 입학생 3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50+ 인생학교는 방송PD이자 수필가인 김사는 씨가 교장을 맡아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앞장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2500만원 상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본부장 강희송)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본부장 김명섭)는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를 돕겠다고 총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전주시는 이번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정부가 지급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과 함께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강희송 전북본부장은 "조합원들의 소비축진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다시금 활력이 돌아오길 응원한다"면서 "엄중한 사국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완열 전주시상인연합회장, 공영옥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50+ 인생학교' 7기 입학생 30명 모집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인생 재설계를 돕는 학교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인생 전환기의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64세 시민을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50+ 인생학교' 7기 입학생 3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50+ 인생학교는 방송PD이자 수필가인 김사는 씨가 교장을 맡아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앞장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2500만원 상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본부장 강희송)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본부장 김명섭)는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를 돕겠다고 총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전주시는 이번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정부가 지급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과 함께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강희송 전북본부장은 "조합원들의 소비축진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다시금 활력이 돌아오길 응원한다"면서 "엄중한 사국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완열 전주시상인연합회장, 공영옥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 택시 운전사, 자살 고위험군 생명지킴이 협력

### 전주시·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성심택시 150여 대 '생명사랑 안심택시' 지정

전주지역 택시 운전사들이 자살 위험 징후가 있는 시민들의 지킴이로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는 우리택시전주협동조합 및 성심택시 소속 택시 150여 대를 '생명사랑 안심택시'로 지정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와 센터는 택시 운전사들이 탑승객들의 자살위험을 탐지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안심택시를 지정했다.

안심택시 운전사들은 운행 간 대화를 통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거나 우울감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자살 위기가 발견되면 상담 전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게 된다.

또 '생명사랑 안심택시'로 지정된 택시 내부 승객석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살예방 리플릿도 상시 비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와 센터는 세계 자살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택시전주협동조합 및 성심택시 소속 택시 150여 대를 '생명사랑 안심택시'로 지정했다.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6일부터 10일까지를 자살예방주간으로 정하고, 택시 150여 대에 홍보 깃발을 설치하고 달리는 '생명사랑 안심택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지훈 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자살 징후가 있는 탑승객들에게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택시운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

한 활용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원 센터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택사에서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대중들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해주신 택시 관계자들과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생명소재 기능성식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 업체 모집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오는 17일까지 '농생명소재 기능성식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농생명소재 기능성식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2건 ▲기술이전 1건 ▲수출지향형 제품지원 3건 ▲브랜드개발 3건 ▲박람회참가 2건 ▲홍보물제작 3건 ▲마케팅전략수립 2건 ▲성분분석 2건 등 다양한

계 지원된다.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부문은 경우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이, 기술이전 및 수출지향형 제품지원의 경우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브랜드개발, 박람회참가, 홍보물제작, 마케팅전략수립 부문은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성분분석 부문은 총 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각 기업마다 기술닥터(전문가)를 매칭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고일(9월 3일) 기준 전북지역 내 농생명소재 관련 중소·중견 식품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기업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역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진단 및 평가를 진행해 다음 달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